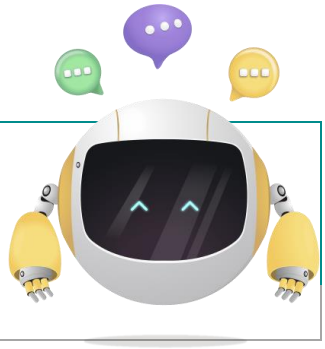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2.20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팔로알토, M&A 영향과 보수적 가이던스

팔로알토(PANW.US): FY26년 2분기 실적 리뷰

- 팔로알토 FY26년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는 -7% 하락. 3분기와 2026년 연간 가이던스 항목 중 매출은 M&A 효과를 제외하면 시장 예상치 수준, EPS는 인수/통합 비용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기 때문. 매출, 차세대보안 ARR, RPO에 대한 FY26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으나, M&A 기여분을 제외하면 매출은 2분기 상회폭 수준만 상향 조정, 차세대보안 ARR과 RPO 가이던스는 기존 수준을 유지. 플랫폼화 계약 체결 최고치 기록 등 전략적 사업 진행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나 인수 초기 시점과 AI 도입 속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가이던스 제시한 것으로 보임.
- 1)M&A 영향에 따른 단기적인 수익성 지표 압박, 2)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세부 분야를 따지지 않고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에 대한 경계심 증가, 3) AI 보안 서비스 출시 초기 & M&A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팔로알토의 공격적인 사업 전략 대비 실적을 통한 입증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1)AI 도입은 보안 서비스의 통합과 플랫폼화 수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며 2분기 플랫폼화 계약 체결(순신규 110건으로 성수기 4분기 제외하고 최고치 갱신)을 통해 통합 사업자로서 경쟁력 입증, 2) 주요 성장 동력 제품인 SASE와 XSIAM의 고무적인 지표 달성, 3) 기업의 AI 도입 증가에 따른 우호적 환경(옵저버빌리티 수요 상승 & 아이덴티티 보안 중요도 급증) 속에서 크로노스피어 & 사이버아크 통합 시너지 기대감을 고려하면 PANW에 대한 기존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효.

클라우드플레어(NET.US): AI Agent로 인한 트래픽 두 배 상승

- 25년 4분기 실적을 통해서 단순 CDN 네트워크를 넘어 AI 에이전트 트래픽 폭증의 최대 수혜를 입는 필수 인프라로 확실하게 진화했음을 확인.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붓는 하이퍼스케일러나 전통적인 웹 전송망에 머물러 있는 패스트리, 아카마이 등과 달리, 동사는 구조적인 비용 우위와 Workers 플랫폼을 무기로 수익성이 동반된 강력한 외형 성장(매출 34% 증가)을 이뤄냈고 대형 엔터프라이즈 타겟의 영업 전략까지 성공적으로 안착 시키며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해 나가고 있음

AI Agent 시대 도래

- 1월 한 달에만 AI 에이전트가 생성하는 주간 트래픽이 두 배 이상 폭증. 에이전트 활동 증가가 Workers 개발 플랫폼 사용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클라우드플레어의 보안 및 네트워킹 서비스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음. 또한 바이브 코딩(Vibe coding) 플랫폼들이 Workers를 선호하며, 보안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 도입과 캐싱 및 속도 제한을 위한 AI 게이트웨이 사용이 급증함
- 주요 AI 기업들이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하이퍼스케일러) 대신 클라우드플레어의 워커스(Workers) 플랫폼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종속성이 없고, 유연하며, 대규모 글로벌 트래픽을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경쟁력으로 작용
- 지난 2년간 제품 주도 성장 구조에서 대형 엔터프라이즈 대상의 영업 구조로 개편한 것이 결실을 맺고 있음. 이번 분기 역대 최대 ACV인 연간 4,250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

데이터독(DDOG.US): LLM이 대체할 수 없는 솔루션

-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용량 추이 관련 4분기에 기존 고객들의 견고한 사용량 증가세 확인. AI 네이티브 고객을 제외한 광범위한 고객층의 매출 성장이 3분기 20%에서 4분기에 23%로 가속화 되었으며 1월에도 지속

핵심 APM 고성장 및 GTM(Go to Market) 투자 지속

- 전체 플랫폼 도입을 이끄는 핵심 제품인 APM(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부문이 전년 대비 30% 중반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재가속화 단계에 진입. 고객들이 흩어진 레거시 툴들을 데이터독 플랫폼으로 통합(Consolidation)하면서 도입하는 제품 수가 크게 늘고 있음(고객의 18%가 8개 이상 제품 사용)
- 2026년에는 기존 GTM 전략의 틀을 유지하되, 글로벌 영업 인력 규모 확대와 채널 파트너십 강화에 주력할 예정임. 단기적인 영업이익률 극대화보다는 장기적인 클라우드 및 AI 전환 트렌드를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 R&D와 플랫폼 기능 강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

광물 프로젝트 지속과 프렌드쇼어링

미국은 프렌드쇼어링 강화하고있으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70%

- 이번 FORGE 출범을 포함해 미국은 일본, 호주 등 우호국과 협력하며 Friend Shoring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 높음
- 희토류 70%, 안티몬 55%, 비소/흑연 50%
- 2025년 미국의 희토류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VC 투자액은 6억 2,800만 달러로 글로벌 투자액의 90%를 차지하며 2024년 대비 3,000% 증가
- '25년 6월 전쟁부의 MP 머티리얼즈(MP.US) 지분투자(15%)와 NdPr 가격 하한 약정에 이어 '26년 1월 상무부는 USA 레어어스(USAR.US)에 지분투자(약 10%)와 16억 달러 LOI를 공개

우라늄 업데이트

미국의 자국 우라늄 공급망 구축은 원심분리기 확장 계획 단계

- 에너지부는 자국 내 우라늄 공급망 구축을 위해 올해 들어 크게 두가지 지원책을 공개
- 1월 초 공개된 에너지부의 지원책은 센트러스에너지(LEU), BWX테크놀로지(BWXT), LIS Technologies(비상장) 각 기업이 원심분리기 제조 시설을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데에 9억달러씩 총 27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
- 차세대 원자로와 SMR의 필수 연료인 HALEU의 생산에 초점
- 1월 중순에는 미국 카이로스파워가 Hermes 실증로에 사용될 연료 제조를 위한 HALEU 계약을 체결
- Hermes는 35Mth 급 용융염 원자로이며 NRC의 건설허가를 승인. 50년만에 미국에서 허가된 첫 비경수로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메타와의 장기적 협력 확대

- 엔비디아는 메타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AI 인프라 전반에 걸친 다년·다세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메타는 학습과 추론 모두에 최적화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로드맵 아래 엔비디아 CPU와 블랙웰 및 루빈 GPU를 수백만 단위로 대규모 배치하겠다고 밝힘

알파벳(GOOGL.US): 수학 분야에서의 LLM 성과 경계

-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구글 딥마인드의 Gemini와 오픈AI의 ChatGPT가 인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낸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이정표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오픈AI(비상장): 1,000억 달러 자금 조달 마무리 단계

- 인프라 투자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기업가치 8,500억 달러로 1,000억 달러 이상의 펀딩 라운드 1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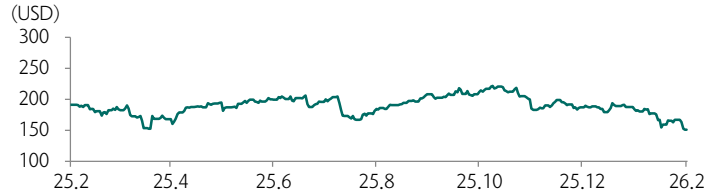
앤스로픽(비상장): 2029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800억 달러 지출 예상

- 앤스로픽의 클라우드 인프라 지출이 2029년까지 누적 8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형 언어모델 학습·추론 수요 급증에 대응한 대규모 컴퓨트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팔로알토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사이버보안
시가총액(십억달러)
123

최근 주가 추이



팔로알토(PANW.US): FY26년 2분기 실적 리뷰

- 팔로알토 FY26년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는 -7% 하락. 3분기와 2026년 연간 가이던스 항목 중 매출은 M&A 효과를 제외하면 시장 예상치 수준, EPS는 인수/통합 비용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기 때문. 매출, 차세대보안 ARR, RPO에 대한 FY26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으나, M&A 기여분을 제외하면 매출은 2분기 상회폭 수준만 상향 조정, 차세대보안 ARR과 RPO 가이던스는 기존 수준을 유지. 플랫폼화 계약 체결 최고치 기록 등 전략적 사업 진행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나 인수 초기 시점과 AI 도입 속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가이던스 제시한 것으로 보임.
- 팔로알토는 옵저버빌리티 사업자 '크로노스피어' 인수를 2분기말에 완료했고, 아이덴티티 보안 대표 사업자 '사이버아크' 인수를 현 분기인 3분기 초(2월)에 완료. 통합 비용과 하드웨어 비용 증가, 사이버아크 인수에 따른 주식발행 등을 반영한 3분기 조정 EPS 가이던스는 0.78~0.80 달러로 시장 전망치(0.92)를 14% 하회. FY26년 조정 OPM, EPS 연간 가이던스도 통합 비용 등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
- 1)M&A 영향에 따른 단기적인 수익성 지표 압박, 2)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세부 분야를 따지지 않고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에 대한 경계심 증가, 3) AI 보안 서비스 출시 초기 & M&A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팔로알토의 공격적인 사업 전략 대비 실적을 통한 입증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1)AI 도입은 보안 서비스의 통합과 플랫폼화 수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며 2분기 플랫폼화 계약 체결(순신규 110건으로 성수기 4분기 제외하고 최고치 갱신)을 통해 통합 사업자로서 경쟁력 입증, 2) 주요 성장 동력 제품인 SASE와 XSIAM의 고무적인 지표 달성, 3) 기업의 AI 도입 증가에 따른 우호적 환경(옵저버빌리티 수요 상승 & 아이덴티티 보안 중요도 급증) 속에서 크로노스피어 & 사이버아크 통합 시너지 기대감을 고려하면 PANW에 대한 기존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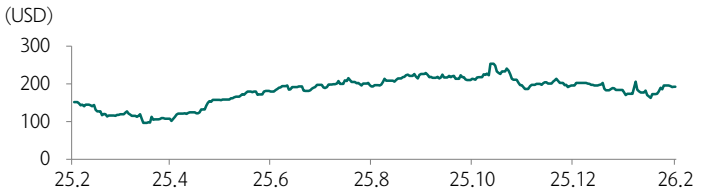
<u>FY26년 2분기 주요 실적 지표 & 중요 사항</u>

- 차세대보안(NGS) ARR 63.3억 달러(YoY +33%) 달성. 인수 효과 제외하면 61.3억(+28%)으로 가이던스 상단(61.4억) 수준. RPO 160억(+23%) 달성, 가이던스(+21.5% 전망) 상회했으나 인수 효과 제외하면 159억으로 가이던스 상단 부합
- 매출액 25.9억(+15%), 조정 EPS 1.03달러 기록, 컨센(25.8억, 0.94) 상회. 조정 OPM 30.3%로 3개 분기 연속 30% 넘으면서 컨센(29.4%) 상회
- 2분기에 순신규 플랫폼화 계약 110건 달성하며 총 플랫폼화 계약 수 1,550개로 YoY 35% 증가
-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SASE 사업 ARR 15억 달러 돌파, YoY 40% 성장.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SASE 사업자 지위 공고화.
- XSIAM(AI 기반 보안 운영 플랫폼) ARR 5억 달러 돌파.
- AI 보안 Prisma AIRS, 출시 몇 분기 만에 100개 이상 고객 확보. 고객 수 전분기대비 3배 이상 증가

클라우드플레어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십억달러)
67

최근 주가 추이



클라우드플레어(NET.US): AI Agent로 인한 트래픽 두 배 상승

- 25년 4분기 실적을 통해서 단순 CDN 네트워크를 넘어 AI 에이전트 트래픽 폭증의 최대 수혜를 입는 필수 인프라로 확실하게 진화했음을 확인.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붓는 하이퍼스케일러나 전통적인 웹 전송망에 머물러 있는 패스트리, 아카마이 등과 달리, 동사는 구조적인 비용 우위와 Workers 플랫폼을 무기로 수익성이 동반된 강력한 외형 성장(매출 34% 증가)을 이뤄냈고 대형 엔터프라이즈 타겟의 영업 전략까지 성공적으로 안착 시키며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해 나가고 있음

4Q25 주요 실적 지표

- 매출 6.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 5.91억 달러 상회. 조정 EPS도 0.28 달러로 시장 예상치 0.27 달러 상회
- NRR은 120%로 전년 대비 9%p 상승했고, RPO는 48% YoY 성장하며 4분기 연속 가속화 추세를 이어감
- 대형 고객($100K+ ARR)은 4,298개로 YoY 23% 증가했으며 매출 비중이 73%로 전년 69%에서 확대됨. 초대형 고객($10M+ ARR)은 269개로 YoY 55% 증가. 신규 ACV(연간 계약 가치)는 약 50% YoY 성장하며 2021년 이후 최고 성장률을 기록
- FY26 매출 가이던스는 27.85~27.95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27.3억 달러를 상회.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4%로 시장 예상 16%를 하회. EPS 가이던스도 1.11~1.12달러로 컨센서스 1.18 달러를 하회. 이는 영업 인력 확충과 생산능력 투자 확대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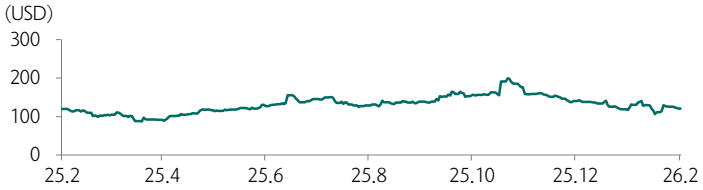
AI Agent 시대 도래

- 1월 한 달에만 AI 에이전트가 생성하는 주간 트래픽이 두 배 이상 폭증. 에이전트 활동 증가가 Workers 개발 플랫폼 사용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클라우드플레어의 보안 및 네트워킹 서비스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음. 또한 바이브 코딩(Vibe coding) 플랫폼들이 Workers를 선호하며, 보안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 도입과 캐싱 및 속도 제한을 위한 AI 게이트웨이 사용이 급증함
- 주요 AI 기업들이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하이퍼스케일러) 대신 클라우드플레어의 워커스(Workers) 플랫폼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종속성이 없고, 유연하며, 대규모 글로벌 트래픽을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경쟁력으로 작용
- 지난 2년간 제품 주도 성장 구조에서 대형 엔터프라이즈 대상의 영업 구조로 개편한 것이 결실을 맺고 있음. 이번 분기 역대 최대 ACV인 연간 4,250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

데이터독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십억달러)
42

최근 주가 추이



데이터독(DDOG.US): LLM이 대체할 수 없는 솔루션

-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용량 추이 관련 4분기에 기존 고객들의 견고한 사용량 증가세 확인. AI 네이티브 고객을 제외한 광범위한 고객층의 매출 성장이 3분기 20%에서 4분기에 23%로 가속화 되었으며 1월에도 지속.
- 26년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향후 Beat & Raise 패턴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제시한 것 역시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 의지 때문. AI 플랫폼 고도화와 글로벌 영업망 확장에 우선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계획. 현재 전략적 투자 구간으로 조정 OPM 구조를 20%대 초반수준으로 내렸으나 중장기 25% 타겟 재확인
- SW에 대한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데이터독은 AI 인프라 구축에서 대체될 수 없는 SW 기업임이 확인됨. 상위 20개 AI 기업 중 14곳을 고객으로 확보했으며, 650개 AI 네이티브 고객 중 19곳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 초대형 AI 모델 기업도 오픈소스 및 자체 구축 툴을 버리고 1,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

4Q25 주요 지표

- 매출 9.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 9.19억 달러 상회. 조정 EPS도 0.59 달러로 시장 예상치 0.55 달러 상회. 조정 영업이익은 2.30억 달러(마진 24.1%)로 예상치 2.21억 달러를 상회함
- RPO와 cRPO는 각각 전년 대비 50%, 40% 이상 성장. 총 18건의 1,000만 달러 이상 TCV 딜을 체결하며 북킹(Bookings)은 1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 AI 네이티브 고객 매출 비중이 11%를 차지하며 고성장을 견인했고, Non-AI 네이티브 매출도 23% YoY 성장하며 가속화 추세를 보임
- 대형 고객($100K+ ARR)은 4,310개로 YoY 19% 증가하며 성장세가 가속화됨. 초대형 고객($1M+ ARR)은 603개로 YoY 31% 증가
- FY26 매출 가이던스는 40.6~41.0억 달러(중간값 기준 +19% YoY)로 시장 예상치 41.1억 달러를 소폭 하회. 영업이익 가이던스 역시 컨센서스 대비 약 0.92억 달러 낮게 제시.

AI 인프라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 확인

- 상위 20개 AI 기업 중 14곳을 고객으로 확보했으며, 650개 AI 네이티브 고객 중 19곳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
- 선도적인 초대형 AI 모델 기업과 1,000만 달러 이상의 신규 계약을 체결. 해당 기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5개 이상의 오픈소스 및 자체 구축 툴을 버리고 데이터독으로 모니터링을 일원화. 이는 대형 AI 기업들조차 자체 툴을 유지하는 것보다 데이터독을 사용하는 것이 엔지니어 생산성 및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
- Anthropic이나 OpenAI 같은 고도화된 LLM 에이전트가 자체적으로 시스템 이상을 감지하여 데이터독의 파이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경영진은 확고한 자신감을 표명. 범용 LLM은 사고 발생 후(post-hoc) 축적된 데이터를 모아서 사후 원인을 분석하는 데 능하지만, 데이터독의 해자는 초당 수백만 건의 방대한 트래픽을 실시간 '인스트림(in-stream)' 환경에서 처리하는 역량에 있음. 즉,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조치하는 실시간 데이터 플레인(Data plane) 영역은 일반 LLM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확고한 진입장벽

핵심 APM 고성장 및 GTM(Go to Market) 투자 지속

- 전체 플랫폼 도입을 이끄는 핵심 제품인 APM(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부문이 전년 대비 30% 중반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재가속화 단계에 진입. 고객들이 흩어진 레거시 툴들을 데이터독 플랫폼으로 통합(Consolidation)하면서 도입하는 제품 수가 크게 늘고 있음(고객의 18%가 8개 이상 제품 사용)
- 2026년에는 기존 GTM 전략의 틀을 유지하되, 글로벌 영업 인력 규모 확대와 채널 파트너십 강화에 주력할 예정임. 단기적인 영업이익률 극대화보다는 장기적인 클라우드 및 AI 전환 트렌드를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 R&D와 플랫폼 기능 강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

광물

Mine, baby, mine

Project Vault: 120억 달러 핵심 광물 프로젝트

-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120억 달러의 핵심 광물 전략 비축 계획(Project Vault)은 100억 달러의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 직접 대출과 20억 달러의 민간 자본이 결합
- 핵심은 비중국 공급망으로, 60일치 분량의 핵심 광물을 미국 내 비축하는 것을 목표
- Traxys, Mercuria, Hartree 등 상사가 리튬, 구리, 희토류 등을 구매하고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
- 이외 참여 기업으로는 GE버노바, GM, 보잉, 구글, 록히드마틴 등
- 유사 선례로 미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에도 전략 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설치해 물리적 비축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DOE에서 운영 중
- 차이점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비축하는 SPR 과 달리 이번 프로젝트는 민관 협동으로 진행되며 고객 역시 기존 국방 중심이 아닌 산업/제조업 중심으로 확대된다는 것

FORGE 출범으로 가격 하한 매커니즘 도입

- 지난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결성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을 '지전략적 자원협정 포럼(FORGE)'으로 재출범
- MSP와 FORGE의 가장 큰 차이는 가격 하한의 도입. 동맹국 내 적용되는 참조가격을 정하고 그 아래 가격의 덤핑 물량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도입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법
- 중국은 작년부터 중희토류 7종에 관련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일본향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도 강화
- 영구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의 가격은 최근 모두 사상 최고치

미국은 프렌드쇼어링 강화하고있으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70%

- 이번 FORGE 출범을 포함해 미국은 일본, 호주 등 우호국과 협력하며 Friend Shoring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 높음
- 희토류 70%, 안티몬 55%, 비소/흑연 50%
- 2025년 미국의 희토류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VC 투자액은 6억 2,800만 달러로 글로벌 투자액의 90%를 차지하며 2024년 대비 3,000% 증가
- '25년 6월 전쟁부의 MP 머티리얼즈(MP.US) 지분투자(15%)와 NdPr 가격 하한 약정에 이어 '26년 1월 상무부는 USA 레어어스(USAR.US)에 지분투자(약 10%)와 16억 달러 LOI를 공개

우라늄

우라늄 시장 업데이트

러시아산 수입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3.6%까지 급감

- 미국은 2022년 바이든 정부부터 당시 미국에 농축우라늄 20%를 공급했던 러시아 Rosatom에 대한 제재를 검토
- 2023년에는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 해당 법안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상한선을 정해 러시아산 우라늄은 미국 내 수요 20%를 초과할 수 없음
- 현재 미국의 상업용 농축 시설은 영국·네덜란드·독일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는 Urenco가 유일
- NRC는 2025년 9월 Urenco의 농축 한도를 기존 5.5%에서 10%로 상향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음
- 미국의 U3O8 수입의 러시아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3.6%까지 급감
- 반면 캐나다로터의 수입량은 70% 증가하며 (비중은 22.4%에서 33.3%로 증가)하며 5년새 증가한 우라늄 수요에 대응

미국의 자국 우라늄 공급망 구축은 원심분리기 확장 계획 단계

- 에너지부는 자국 내 우라늄 공급망 구축을 위해 올해 들어 크게 두가지 지원책을 공개
- 1월 초 공개된 에너지부의 지원책은 센트러스에너지(LEU), BWX테크놀로지(BWXT), LIS Technologies(비상장) 각 기업이 원심분리기 제조 시설을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데에 9억달러씩 총 27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
- 차세대 원자로와 SMR의 필수 연료인 HALEU의 생산에 초점
- 1월 중순에는 미국 카이로스파워가 Hermes 실증로에 사용될 연료 제조를 위한 HALEU 계약을 체결
- Hermes는 35Mth 급 용융염 원자로이며 NRC의 건설허가를 승인. 50년만에 미국에서 허가된 첫 비경수로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메타와의 장기적 협력 확대

- 엔비디아는 메타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AI 인프라 전반에 걸친 다년·다세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메타는 학습과 추론 모두에 최적화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로드맵 아래 엔비디아 CPU와 블랙웰 및 루빈 GPU를 수백만 단위로 대규모 배치하겠다고 밝힘
- 네트워킹 측면에서는 Spectrum-X 이더넷 스위치를 메타의 Facebook Open Switching System 플랫폼에 통합해 AI 스케일에서의 네트워크 효율과 처리량을 높이고, 컴퓨트 측면에서는 Arm 기반 Grace CPU의 대규모 생산 배포를 확대해 데이터센터 성능 대비 전력 효율을 개선한다는 방향을 제시
- 보안과 프라이버시 영역에서는 WhatsApp의 프라이빗 프로세싱에 NVIDIA Confidential Computing을 채택해 사용자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AI 기능을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양사는 CPU, GPU,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전반의 공동 설계를 통해 메타의 추천·개인화 같은 핵심 워크로드와 차세대 모델 최적화를 추진한다고 설명

- 젠슨 황 CEO는 AI 거품론을 부정하며, 현재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는 수십조달러급 AI 인프라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라고 선을 그음. 또한 엔비디아가 모델 기업 단일 축이 아니라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한 AI 스택 전반에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고, 2026년 3월 16~19일 열리는 GTC에서 "세상이 본 적 없는 새로운 칩" 공개를 예고

알파벳(GOOGL.US): 수학 분야에서의 LLM 성과 경계

-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구글 딥마인드의 Gemini와 오픈AI의 ChatGPT가 인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낸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이정표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IMO 문제 해결은 특정 도메인에서의 고난도 추론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 현실 세계의 복잡하고 불완전한 정보 환경에서 장기적 계획과 상식, 인과 추론을 수행하는 범용 인공지능(AGI)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함. 즉, 수학 경시대회 성과는 모델의 계산·논리 역량을 입증하지만, 실제 산업·과학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속적 학습, 자율적 목표 설정, 맥락 이해 능력까지 확보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AI 경쟁이 성능 지표 중심에서 실제 적용 가치와 안전성 검증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

- Gemini 앱에 딥마인드의 음악 생성 모델 Lyria 3를 탑재. 구독자는 텍스트 프롬프트는 물론 사진 한 장으로도 고음질 30초 트랙을 만들 수 있음. 나아가 가사 자동 생성, 보컬·템포·스타일 세부 조정, 더 복잡한 편곡(레이어링) 등이 가능

오픈AI(비상장): 1,000억 달러 자금 조달 마무리 단계

- 인프라 투자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기업가치 8,500억 달러로 1,000억 달러 이상의 펀딩 라운드 1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

- 자사 모델 GPT-5.2를 활용해, 그동안 이론물리학에서 "항상 0이 나온다"고 알려졌던 특정 입자 충돌 계산이 실제로는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는 0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발표. 쉽게 말해, 과학자들이 "이 경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배워왔던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조건을 넣어보니 실제로는 작은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찾아낸 것
- 이번 결과는 사람이 먼저 복잡한 계산을 일부 진행한 뒤, AI가 그 패턴을 정리하고 일반적인 공식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도출. 이는 AI가 단순히 글을 쓰는 도구를 넘어, 어려운 수학 문제에서 새로운 규칙을 찾는 보조 연구자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

앤스로픽(비상장): 2029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800억 달러 지출 예상

- 앤스로픽의 클라우드 인프라 지출이 2029년까지 누적 8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형 언어모델 학습·추론 수요 급증에 대응한 대규모 컴퓨트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GPU 및 데이터센터 용량을 선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AI 모델 고도화 및 상용화 확장에 필요한 안정적 인프라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음을 시사

- 미 국방부가 앤스로픽과의 거래를 끊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앤스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해 국방부와 거래하는 기업들까지 Claude 사용을 끊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됨
- 이는 통상 해외 적성국 대상에 가까운 강한 제재 수단으로 국방부의 협상 레버리지를 위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현재는 미국 국방부가 '모든 합법적 목적'으로 모델을 쓰게 해달라는 요구와, 앤스로픽이 대규모 국내 감시나 완전 자율 무기 개발 등을 위한 사용 금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2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2월 2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